

“주민 삶을 바꾸는 첫걸음, 현장에서 다시 뛴니다”

민선9기 김영욱 구청장 재선

더 편안한 도시

더 안전한 도시

더 행복한 도시

부산진구의 미래입니다

6·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영욱 현 부산진구청장이 당선됐다.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까지 부산진구의 행정을 맡게 된 김 구청장은 “다시 한번 저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난 4년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한다”라며 “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선거가 끝나고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한 김영욱 구청장이 당선 인사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현장이다.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에 서부터 붕괴·균열이 염려되는 노후 건물, 쓰레기가 방치되기 쉬운 도로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. 대부분 여름철 호우와 장마를 앞두고 안전이 염려되는 곳들이다.

이는 김 구청장의 평소 정치적 소신과도 이어지는 부분이다. 그가 평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.

“정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.”

김 구청장은 ‘주민 삶을 바꾸는 일’에 대해 “거창하지 않다. 중요한 건 주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더 편안해지고, 안전해지고, 행복해지느냐에 달렸다”라고 전했다. 이보다 명쾌할 수 있을까. 아주 쉬운 말로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한다. 그리고 김 구청장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. 현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마침내 시대 흐름의 큰 물결로 이어진다는 믿음과 철학이 확고하다.

민선9기 도약하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‘부산

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’라고 설정하고 5개의 분야별 큰 약속을 하게 된 것도 그 같은 신념의 표출이다.

김 구청장은 수일 간의 현장 점검을 마친 뒤 6월 18일 20개 동 동장과 국장급 간부공무원 전체를 소집해 ‘여름철 자연재난 대응태세 긴급 점검회의’를 열었다. 예정에 없던 회의였지만, 김 구청장과 참석 간부 공무원들은 집중 관리 재해취약지 134개소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체계와 현장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. 자신이 먼저 점검한 현장 상황과의 비교도 빼놓지 않았다.

7월 1일 새벽 서면 환경정비로 임기 개시

김 구청장은 7월 1일 취임식 날에도 현장부터 찾는다. 새벽 6시 30분 간부 공무원과 함께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‘쓰레기 없는 서면 대청소’를 실시한다.

서면 거리를 쾌적하게 바꿔 내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상권 활성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의 첫 출발점이다.

김 구청장은 “12년간의 부산시의원, 지난 4년의 행정 경험을 총동원해 부산진구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는 참일꾼이 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문의 :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계(605-4112)

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약력

- 부산광역시의회 제5·6·7대 의원(전)
-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(전)
-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장(전)
- 부산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(전)
-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(전)
-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이사(전)
-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(전)
- 민선8기 부산진구청장



민선9기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6월 8일 부산진구 전포1동 황령산레포츠공원 인근에서 호우 피해 대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.